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 '승무원 체험'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지난 5~6일 1박 2일 동안 대한민국 FSC(Full Service Carrier)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승무원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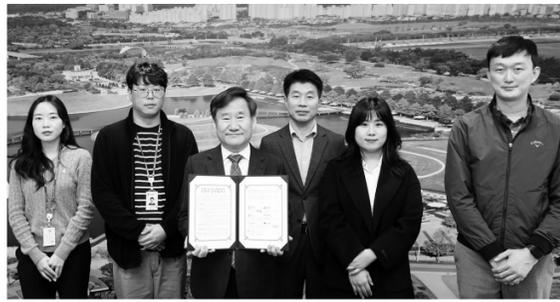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링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 29명과 인솔교수 2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 첫날에는 비상착수 및 비상탈출 훈련을 통해 비행기의 긴급 착수 상황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내 비상 장비를 다루는 실습을 통해 실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에서 뛰어난 열정과 성실함을 보여준 남윤창 학생과 박시현 학생은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았다.

남윤창·박시현 학생은 "이번 아시아나 항공 훈련 체험이 항공사 취업 준비에 큰 동기부여가 됐다.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비상착수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도전에서도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여수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맞손'

전남도와 여수시가 LG화학, YNC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GS칼텍스 등 여수국가산단 주요 5개 기업과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 문화확산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정기명 여수시장, 이현규 LG화학 주재임원, 조병만 YNCC 제조총괄 임원·전무, 안인수 한화솔루션 총괄임원, 조정훈 롯데케미칼 사무지원 공장장, 오영철 GS칼텍스 설비 공장장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에는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과 지자체의 순환 경제사회 전환 및 환경 친화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업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전남도와 여수시는 기업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찬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민관 협업 자원순환 모범 사례가 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2024 나이팅게일 선서

송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1일 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 받아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다짐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사진)

이날 나이팅게일 선서식에는 126명의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촛불절하 의식을 통해 몸을 태워 주위를 밝혀주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다짐하고 앞으로 갈고 닦게 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친 학생들은 겨울 방학부터 나가는 임상실습을 시작으로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간호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다하고,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연구해 환자의 요구에 맞는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바란다"며 "언제 어디에서든 성실한 간호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동환 기자

조선대병원 주정연 교수, 소아소화기영양학회 '학술상'

조선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정연(사진)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히에서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11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학회에서 주 교수는 '소아 비만 환자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서 간 섬유증 선별을 위한 비침습적 혈청학적 표지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소아소화기영양학 분야에서의 학술적 가치가 높고 학회의 학술발전을 위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서 간 섬유증의 선별을 위한 비침습적 혈청학적 표지자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소아청소년에서 지방간의 섬유화를 예측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혈청학적 표지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교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소아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 진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이오니스, 광주시에 소형 공기청정기 전달

광주시는 1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오니스가 광주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소형 공기청정기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

전달식에는 강기정 시장, 장석운 이오니스 대표이사,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물품은 3억2000만원 상당의 음이온이 발생하는 플러그형 공기청정기 1만2000대로,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을 통해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오니스는 최근 3년간 서울·경기·인천·충북 등 전국 지자체에 28억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장석운 이오니스 대표이사는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기부를 시작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aT 상임감사에 전종화 전 전남도 국장 임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상임감사로 전종화(사진) 전 전남도 농림축산식품 국장이 임명됐다.

신임 전종화 상임감사는 강진 출신으로 전남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원예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경제자유구역청행정개발본부장 등 지방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특히 농업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농정 전문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등의 공급 안정과 유통개선, 수출 진흥과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전종화 상임감사는 "공공의 성과를 높이고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경영 견제와 지원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백혈병소아암협 광주전남지회, 자선음악회 개최

오늘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설립 15주년을 맞아 백혈병 소아암 환아와 가족,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사랑이 희망으로'를 12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한다.

11일 백혈병소아암협 지회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걸그룹 씨니힐의 은주, 뮤지컬배우 선우, 바이올리니스트 홍유빈, 테너 류정필,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국악인 김산옥이 출연하고 연주는 쿼라십포니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백혈병소아암으로 투병중인 환아와 가족 100여명을 비롯해 매달 1만 원 이상 후원하는 개인 및 기업,단체 후원자 등 700여명이 음악회에 초대됐으며, 광주전남지회는 특별히 음악회 관

련한 후원금을 조성해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최영준 이사장은 "3년 이상의 긴 투병 기간 동안 지치고 고통받는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후원자들에게는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뜻에서 기획했다"면서 "음악회에 기탁해주는 후원금은 환아의 치료비 지원 및 학습 공백과 성장활동을 돕는 '희망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혈병소아암은 매년 세계야동 인구 10만명당 평균 15명꼴로 발생하며, 광주전남에서는 50~60명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다. 완치율은 85%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의료적 완치판정자 가운데는 재발과 합병증 등으로 사회적 복귀까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노병하 기자

'무파사: 라이온 킹' 내달 개봉

라이온 킹 탄생 30주년

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이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을 11일 공개했다.

'무파사: 라이온 킹'은 거대한 야생에서 고아가 된 어린 사자 무파사가 왕의 혈통이자 예정된 후계자 타카(스카)를 만난 후, 주어진 운명을 뛰어넘어 세상의 왕이 되는 전설적인 여정을 그렸다.

포스터에는 길 잃은 고아에서 세상의 왕이 된 사자 무파사가 태양의 기운을 받으며 위풍당당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무파사의 하나 뿐인 형제이자 왕의 혈통인 타카가 어두운 아우라를 내뿜으며 극과 극 대비를 이뤘다. 여기에 '라이온 킹'의 마스코트 콤비 티몬과 폼바를 비롯해 왕의 보좌관이자 잔소리꾼 자주, 심바를 후계자로 선언했던 지혜로운 주술사 라피키까지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예고편에는 고향을 떠난 무파사와 타카 형제가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그려졌다. 어린 시절 길을 잃고 떠



돌던 아기 사자 무파사가 자신을 구해준 소중한 형제 타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영화 '라이온 킹' (2019)의 프리퀼인 '무파사: 라이온 킹'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탄생 30주년을 맞아 해 제작됐다. '문라이트'로 제89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배리 젠킨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뉴시스

아이유, 현재 약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 추정도 포함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사진)가 약플러와 관련 대대적인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와 법무법인(유한) 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고 추가로 계속 고소를 진행 중이다.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는데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



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다. 피고소인이 불복,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4~5월께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성을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담은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최근 상당 부분 입수했다. 지난 7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12월4일로 예정됐다. 뉴시스